

제 12호·2016년 5월 11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실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이슈

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(TASED¹,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) 아무르주 편

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정의 및 목적

-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, 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, 세제혜택, 행정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지역임
-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(FEZ), 경제특구 및 현행 러시아 특별경제구역(SEZ)와 유사함
- * 이후부터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칭함
- 수출 지향적 산업육성을 통해 극동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임

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추진 현황

- 푸틴 러시아 대통령,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선도개발구역 조성 제안('13. 12)
- 대통령 서명('14. 12) 및 연방법 발효('15. 3)
- 14개 후보군 중 3개 선도개발구역 선정('15. 2) 및 6개 지역 추가 선정('15. 4)
- 나데진스카야, 하바롭스크, 콤소몰스크(이상 '15. 6) 및 미하일롭스키('15. 8) 선도개발구역 설립 공식승인 정부령 채택

구역 지정 및 운영기관

- 각료회의(총리)로 구성된 연방정부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, 선도개발구역 설립 승인 및 특혜 범위 결정
- 연방권한기관으로 극동개발부가 있으며 선도개발구역 인프라, 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, 종합개발 계획안 승인, 입주기업 협약 이행 점검 등이 주요업무임
- 감독위원회는 극동개발부, 주정부, 지자체, 기업 및 노동조합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선도개발구역 설립협력 조정 및 이행 점검, 입주기업 프로젝트 이행 점검, 외국인 노동자 쿼터 결정 등

1)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은 TOP(TASED 러시아어 명칭의 약어), ASEZ(Advanced Special Economic Zone)로 병행하여 명칭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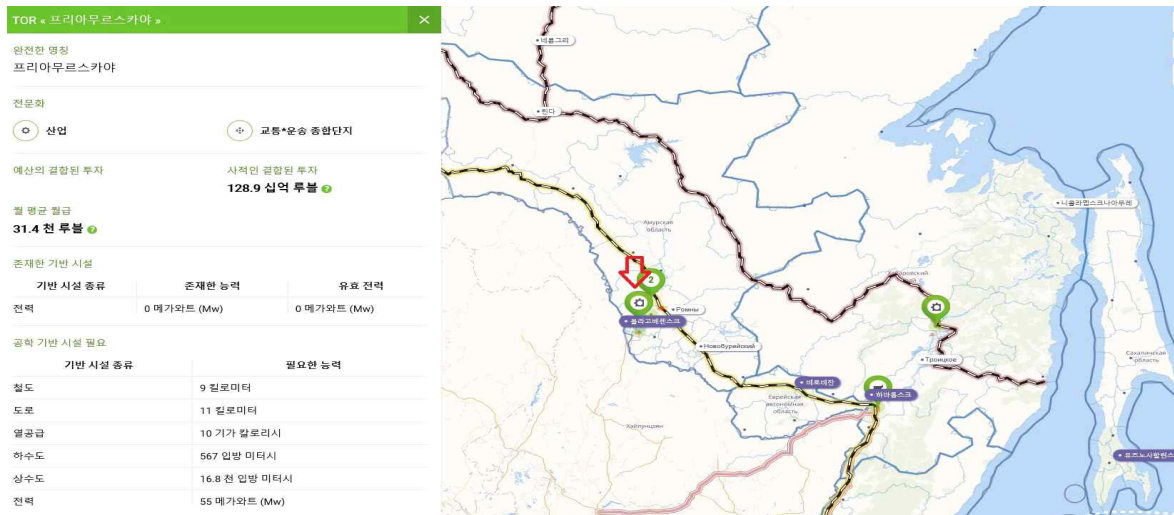
- 관리는 국가가 100% 지분을 소유한 국영관리회사인 '극동개발공사'가 자동차 도로, 건설, 교통서비스 구축, 전력, 난방, 가스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, 택지개발, 복합기능센터 (단일창구) 및 입주기업 활동 등 지원

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주요 혜택

- 세금 및 기업 부담금 혜택
 - 법인세의 경우, 입주 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5년간 면제(2% → 0%) 지방법인세는 최초 이익 발생 시부터 5년간 5%이내, 이후 5년간 10% 이내(18% → 10% 이내) 감면
 - 법인세 혜택은 선도개발구역에 법인으로 등록되고, 역외에 지사 및 대표부를 두면 안 되며 입주자 총소득 중 선도개발구역 활동 소득이 90% 이상 차지해야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, 은행, 보험회사, 민간연금기금, 증권업자, 청산기관, 지역투자프로젝트기업, 경제특구입주기업, 여타 조세 특혜기업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됨
 - 재산세의 경우, 지방정부마다 과세율을 상이하게 두고 있음(현 러 지방정부 과세율은 2.2%이내 임)
 - * 연해주: 입주 후 최초 5년간은 0%, 이후 5년간은 0.5%과세
 - * 하바롭스크주: 입주 후 최초 5년간은 0.5%, 이후 5년간 1.1% 과세
 - 사회보장세의 경우, 입주 후 10년 간 사회보장세 기업 부담률을 현 30%에서 7.6%로 인하함(연금기금 6%, 사회보장기금 1.5%, 의무의료보험기금 0.1%)
- 인프라 혜택
 -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체에 대해 인프라 우선 설치
 - 입주기업체의 부동산 임차시 할인 임대율 적용
- 행정 혜택
 -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, 외국인 유치·활용 허가 불필요하며 러시아 입국 초청 쿼터에도 미 적용됨
 - 입주기업체에 대한 정기 감사 기간을 근무일 연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 연방, 지방 정부 통제 완화
- 통관
 - 관세동맹(Customs Union)의 관세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 적용
 - 통관절차 및 상품의 반입 조건은 관세동맹 영역 내 자유경제지역 및 무관세 통관절차에 의한 협정('10. 6)에 따름

아무르주 '프리아무르스카야' 선도개발구역

<프리아무르스카야 선도개발구역>



자료: <http://map.minvostokrazvitiya.ru> (검색일: 2016년 5월 9일)

- '프리아무르스카야'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 8월 선정되었으며, 베레조프카 구역과 로브노예 구역으로 나뉨
- 베레조프카 구역
 - 베레조프카 구역은 총 면적 약 900헥타르로 현재까지 2개 기업이 총 투자자금 1,246억 루블 규모로 입주함
 - 이미 40억이 입주기업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졌으며, 이 구역에만 1,350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
 - 이 구역의 입주 기업인 'S Technology OJSC'사는 시멘트회사로 시멘트 벽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3억 루블을 투자 및 공장 운영을 위한 법제정을 완료하고 생산하는 시멘트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중으로 5월 중에는 정상 가동이 가능 할 것임
 - 또 다른 입주기업인 'Amur Power Company OJSC'는 연간 60억 톤의 정유 생산이 가능한 아무르 정유공장 건설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, 총 투자 예정액인 1,230억 루블 중 27억 루블 정도의 기초공사 투자가 이루어짐
 - 또한 'Amur Power Company OJSC'사는 선도개발구역 입주 외에 35억 루블을 투자하여 석유생산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무르지역에 동시베리아에서 환태평양 지역으로 석유 수출을 위한 석유파이프 라인 건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
- 로브노예 구역



- 로브노예 구역은 총 면적 약 700헥타르로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역에 건설예정인 다리와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함
- 로브노예 선도개발구역은 지난 20년 동안 미뤄졌던 헤이룽장성과 아무르주를 이어주는 자동차전용 다리건설이 현실화 되면서 지리적 거점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물류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
- 이러한 이유로 극동개발부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교통부, 중국정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
- 러시아와 중국은 다리 건설을 위해 합작회사인 'The Bridge' 설립하여 현재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서류작업 중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모든 서류작업을 끝내고 바로 공사 착수에 들어갈 계획임
- 교량 건설에는 총 1,500명의 인력이 동원될 것으로 보이며 공사기간은 3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 측에서는 2년 6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으며 러시아도 어느 정도 공사기간 단축 가능성이 있다고 합의함

<러-중 합작 아무르강 다리 건설 프로젝트>

아무르강 다리 건설 프로젝트

블라고베렌스크시와 헤이허시를 잇는 새로운 교통로

1995년 6월 26일부터 논의되었던 다리 건설이 현실화 됨



자료: <http://asn24.ru/news/economic/4062/>, KMI 재구성 (검색일: 2016년 5월 9일)

아무르주 '벨로그orsk' 선도개발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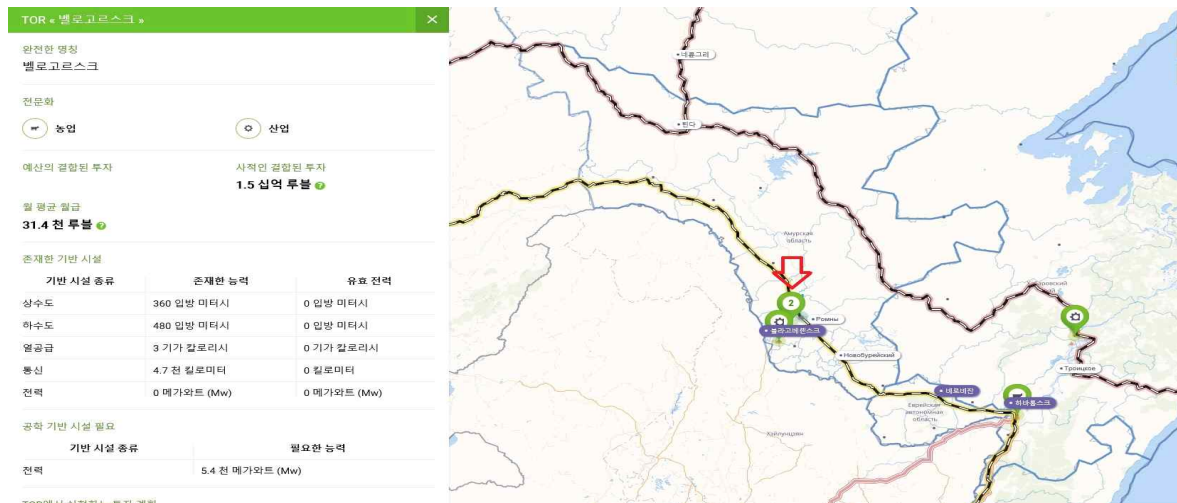
- '벨로그orsk' 선도개발구역은 총 면적 약 700헥타르로 3구역으로 나뉘며 총 투자 자금



은 11억 1,800만 루블이며 이 중 10억이 투자되었으며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함

- 식용유 생산 공장 'Amursky'사는 24만 톤 콩식용유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설립 할 계획 중에 있으며, 이러한 규모의 공장 설립은 러시아에서 최초임
- 제빵 기업 'Belogorsky Khleb OJSC'는 100만 루블에 못 미치는 소규모 투자를 함
- 이 외에 입주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하나 극동개발부 심사 중에 있음

<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>



아무르주 선도개발구역 지정 예정 지역

- 이미 지정된 2곳의 선도개발구역 외에 1곳을 더 지정할 예정에 있음
- 가장 유력한 곳은 '스바보드넨스키'로 '아무르 가스 가공공장' 프로젝트가 계획된 지역임
 -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면 'Gazprom Processing Blagoveshchensk'가 주요 투자자가 될 것이며 2,6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 - 이 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트루트네프 극동개발부 장관은 41억 루블을 투자 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

자료: http://minvostokrazvitia.ru/press-center/news_minvostok/?ELEMENT_ID=4224, 2016.04.27. (검색일: 2016년 5월 9일), 2015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개요(주블라디보스톡 영사관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물류동향

극동-시베리아간 도로공사 진행

- 러시아 교통부는 극동-시베리아간 도로 재정비 및 보수공사를 위해 610억 루블이 투입됨
 - 재정비되는 도로는 총 25,000km로 이르쿠츠크주의 'P-225 시베리아 연방도로'와 알타이 공화국의 'M-52 추이스키 연방도로'임
 - 이외 'P-258 바이칼 도로' 내 자동차 교량 건설도 있을 예정임
 - 러시아 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약 480km의 연방도로가 새로 개통될 예정임
- 러시아 교통부는 2024년까지 극동-시베리아간의 도로 대보수공사 진행할 계획임
 - 또한 보수공사 후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운송이 가능한 화물차량의 무게를 제한하고자 함
 - 현재 화물차량의 무게 측정을 위한 22개의 검색대가 시범운영 중이며, 2021년까지 러시아 연방 고속도로 전체에 도입하고자 함

<P-255 및 M-52도로 위치>



자료 : <https://ru.wikipedia.org>, <http://ru.georus.wikia.com>(검색일 : 2016년 5월 9일), KMI 재구성

자료: <http://tass.ru/transport/3231662>(검색일: 2016년 5월 09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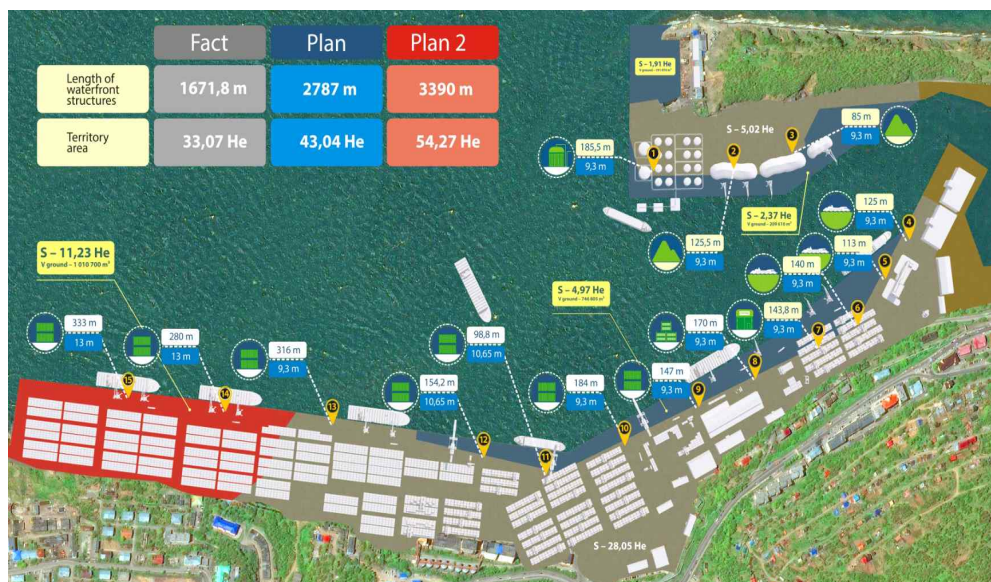
김은미 연구원

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

러시아 항만청, 캄차트카항 재건 프로젝트

- 러시아 항만청은 페트로파브롭스크-캄차트카 상업항(이하 캄차트카 상업항) 재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함
 - 캄차트카 상업항은 1943년 개항하였으며, 면적 32ha로 연간 최대 처리물동량은 3,700만 톤임
 - 이번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'2020년 항만교통시스템 개발 프로그램'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캄차트카 상업항 재건을 통해 모든 선박이 캄차트카 상업항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임
 - 2017년 1/4분기까지 캄차트카 상업항의 5번 선석에 대한 재건이 완공될 예정임
- 캄차트카 상업항의 재건 프로젝트는 향후 약 50년간 진행될 보수공사의 시발점이며, 앞으로 북극해 항로 상용화를 고려한 프로젝트임
 - 이는 원자력쇄빙선 세브모르푸트(Sevmorput)와 같은 쇄빙선의 취항과 정박이 가능한 항만을 만들하고자 함

<페트로파브롭스크-캄차트카 현황도>



자료 : 페트로파브롭스크-캄차트카 항만청 자료

자료: <http://tass.ru/ekonomika/3241718>(검색일: 2016년 5월 09일)

김은미 연구원

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